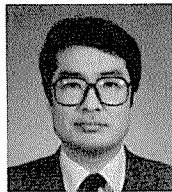


에이즈환자의 인권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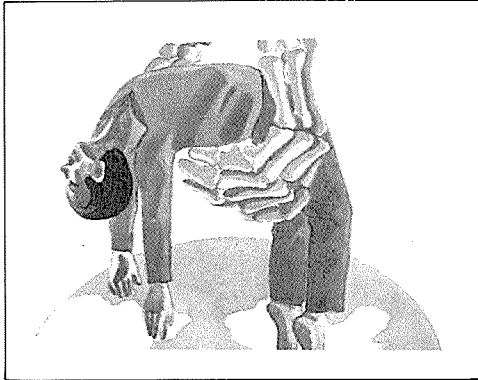
김준명

1985년 국내에 에이즈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하여 이제는 250명이 넘는 감염자가 보사당국에 등록되기에 이르렀다. 처음 감염자가 국내에 발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으레 미국이나 구라파에만 생기는 피질이 국내에 우연히 나타난 것으로만 생각했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에이즈에 관한 한 예외가 아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더우기 서기 2000년에는 감염자 수가 현재의 천 3백만명에서 최악의 경우에 1억 이상으로 늘어나고 대부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약 5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은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더 이상 우리사회가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에이즈는 여느 전염병과 달리

감염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는 질병으로써,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파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주위로부터 그들의 인권이나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왔던 사회를 등지고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많은 감염자들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믿어지지 않는 소식을 듣고는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좌절도 잠시일 뿐, 이번에는 그들이 그간 생활해 왔던 직장, 사회, 심지어는 친지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질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끼면서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그간 몸담아 왔던 사회를 떠나서 주위 사람과의 모든 연락도 끊고, 외롭고 처참한 은둔생활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오랜 기간 은둔생활을 하면서 깊은 고독과 고립감 속에서 자기자신의 심경을

**AIDS
감염자들에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주위로부터
그들의
인권이나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에는 그
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고백한 어느 감염자의 편지 한 구절을 인용한다.

”이 질병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차가운 시선은 우리 감염자들이 겪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으로서 우리를 더욱 더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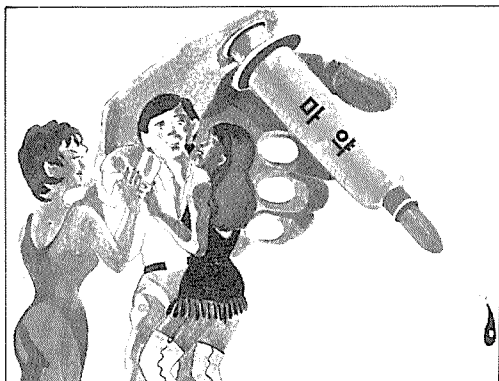
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있기 보다는 질시와 냉대, 그리고 혐오스러운 차별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감염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보다는 그저 수군대면서, 손가락질하고, 원인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하면서 힐책하기에 바쁘더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많은 감염자가 감염사실을 통보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주변의 친지, 주위 가족에게 까지도 얘기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 중 상당수는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돌보아줄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어도 절대 자신의 감염사실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진정 감염자를 동정하고, 따뜻하게 감싸며 돌보아 줌으로써 그들을 지하의 은둔생활로부터 다시 우리 사회로 끌어들이어야 하겠으

며, 진정 그들이 마음놓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다.

우리 감염자들이 그 자신 부끄러워 말 못할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타락한 현대문



명의 희생자일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통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위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이해와 연민, 그리고 도움을 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많은 감염자들은 감염사실을 안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이는 감염사실이 다른 동료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그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주위의 차가운 눈총과 경계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적 압력 때문에 사표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감염자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제적 곤란이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는 감염된 후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7~10년이 걸린다. 따라서 그들도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직장을 갖고 자신과 처자식의 생계

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위로 부터 고립되어 살아가면서 직장에 나가 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일하려 해도 쉽게 받아줄 직장

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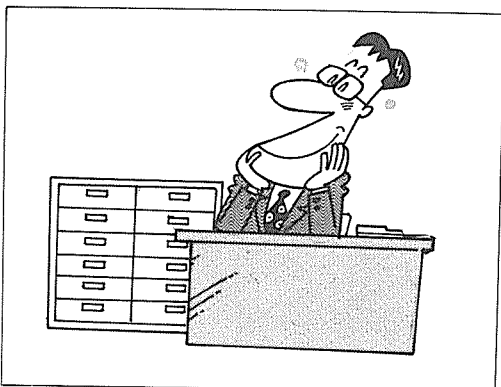
이러한 경제적 곤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더 감염자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자에게 주기적으로 엄습하는 자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로 하여금 생활을 자포자기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자살을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 환자도 감염사실을 안 후, 곧바로 고향을 떠나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년 반 동안의 은둔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간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리게 되자 자신과 처자식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던 중 배운 기술이 운전 뿐이라 버스운전사로 취직하였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의 말로는 하루에 두 번씩 손님을 가득 채운 채 시내를

**AIDS
감염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AIDS에
감염되었든
타락한
현대문명의
희생자일 수
있다.**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그 당시에 심각한 신경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판단력 소실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사고



를 염려해서 버스운전을 그만두도록 권유하였으며, 그후 아직도 새로운 직업을 못 얻고 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감염자 가족과 얘기하던 중, 그로부터 감염자 가족이 사회로 부터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 들은 적이 있다. 그들은 가족 중에 발생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커다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이 마치 감염자인 양 차가운 눈총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당했고 결국은 두 아들 모두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감염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회구성원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또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사회를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감염자들을 다

AIDS에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최소한 7~10년이 걸린다. 적어도 이 기간동안 만큼은 그들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우리 사회로 끌어들여 따뜻하게 도와주고 보살펴 주면서 그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윤리이며 나아가서 구

성원 각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감염자의 편지 한 구절을 더 소개한다.

”이제 나 자신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살아가려는 의지와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하여서든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의학의 발전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와 격려가 없는 외로운 시간들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가족과 주위에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빈손등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게 인생일진데, 그 연수와 수고는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 누구든지 생의 마침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음을 알고 육체는 날로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㉔**

〈필자=연세의대 내과 교수〉